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3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 인쇄인 자녀에 '사랑의 선물'

1962년 3월 5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경기불황으로 기부 문화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요즘 분위기에 대조되는 훈훈한 기사가 실렸다.

가난과 배움에 굶주리는 두메산 아동을 손잡아 일으키기 위한 취지로 인쇄문화시보가 주관하고 대한인쇄공업협회와 재건국민운동 서울지역인쇄공업촉진회 공동후원으로 마련된 인쇄인 자녀들의 '사랑의 선물 모으기 운동' 이 바로 그것. 이 운동은 동년 2월 20일부터 전개됐으며 전개한지 보름만인 동년 3월5일까지 인쇄인 자녀들이 기증한 선물들이 앞을 다투는 가운데 시보건물에 도착했다고 시보는 밝혔다. 특히 동년 2월27일에는 신앙인쇄소 사장 장남 조정훈군과 차남 정석군, 삼남 정남군 등이 교과서 30권과 종1개를 들고 와서 교과서 없이 배우는 두메산골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수업종이 없는 학교에는 이 종을 보내 정시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 ● 인쇄기능공, 입대 후 관련분야 복무 가능

1972년 3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젊은 인쇄기능공들에게 반기운 기사 하나가 게재됐다. 시보는 육군참모총장이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 내용을 인용, 인쇄소에서 다년간 종사한 기술자로서

육군에 입영하는 자들을 파악, 이들이 군인쇄분야에서 종사하게함은 물론, 군인쇄기술병으로 양성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적령에 달한 인쇄기술공들이 입대후에도 계속해서 인쇄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시보는 기사를 통해 젊은 인쇄기능공들이 한창 기술을 닦을 나이에 입대하게 되는 바람에 기술습득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조처로 대규모의 종합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육군인쇄공창과 각지구인쇄공창에 배속돼 근무하게 됨으로써 인쇄기술개발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신문용지값 폭등에 '허리 휘청'

1972년 3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신문용지값이 동년 동월 14일을 기해 17%나 대폭 인상됨으로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에 음영을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시보는 당시 기사에서 통당 7만5천원에 출고되던 신문용지가 14일을 기해 1만3천원이 뛰어오른 통당 8만8천원에 출고됨으로서 울지로 지물상가에서는 그동안 연당 1950원선에 거래되던 것이 2백 원이나 오른 215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금을 주고도 용지를 구입하기 힘든 용지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시보는 전했다. 이를 두고 실수요업계는 작년 9월에 8%를 인상한 이래 7개월 만에 17%나 대폭 인상한다는 것

은 독과점업체의 지나친 횡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보는 정부에서 15일자로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쌀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가격을 3월 6일 수준가격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오른 신문용지값은 좀처럼 환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제지업계가 정부의 저물가정책까지 외면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인쇄업, 합병 장려업종으로 지정

1978년 3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정부가 인쇄업을 중소기업합병 장려업종으로 분류하고 세계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기업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쇄 등 14개부간 46개 업종이 중소기업합병 장려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년 동월 7일 상공부에 따르면 고시된 장려업종은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거나 과잉설비로 중소기업상호간에 경쟁이 치열, 도산이 우려되는 업종들로서 규모가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무구조가 고질적으로 악화상태에 있는 업종, 혹은 설비 및 기술의 낙후로 존립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들이었다. 시보는 정부가 지금까지 영세 중소기업들의 합병을 장려해 오면서도 사실상 그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의 합병장려업종 지정으로 합병기업들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공부가 또 동년 10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확보, 연리13%,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다.

### ● 일간신문사의 상업인쇄업 영역 침식에 항의

인쇄신문은 1991년 3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일간신문사의 상업인쇄업 영역침식 논란을 비중있게 다뤘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동년 3월 21일 한국화약그룹(현 한화)의 경향신문사가 영세인쇄업체가 거래하는 도봉구 청반상회보의 경쟁입찰에 뛰어들어 부득이 재입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터. 이에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화약그룹 김승연회장과 경향신문사장, 도봉구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앞으로 각각 공한을 발송하고 재벌기업인 경향신문사의 상업인쇄사업 영역침식중지를 촉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연합회는 당시 김승연 한국화약그룹회장 앞으로 보낸 공한에서 상업인쇄업은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사업간 및 계층간 격차를 해소시켜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시책에 순응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이전을 활발히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재벌계열 신문사의 인쇄사업영역 침식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특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망했다.

### ● 제지공장들 용수부족으로 조업 중단 위기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제지업이 조업을 중단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 3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갈수기의 용수부족으로 조업을 단축하는 제지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보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업용수 대량 소비업종인 제지업은 용수량이 갈수록 악화되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10여개 대형 제지공장이 물려 있는 경기도 오산의 경우는 하천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량이 줄어 가동률이 대부분 70%이하로 떨어졌다. 시보는 제지업체들이 용수부족 현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1979년 하반기 이후 각 제지업체들의 시설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반해 강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제한가동이 불가피한 제지업체의 재고가 크게 줄어 평균 3-5일분에 그치고 있어 해갈이 쉽사리 안 될 경우 지류의 수급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시보는 전했다.

### ● 공정에 맞는 기종 선택으로 경쟁력 확보하라

'자신없는 분야에서는 일찍 손을 떼라' 1994년 3월 11일자 인쇄신문은 사실을 통해 인쇄물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업계가 공정에 맞는 기종 선택을 선택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전환을 제시했다. 사실에 따르면 1993년에 국내 수입된 인쇄기 및 관련기자재는 4억6천만달러 상당으로 나타난 반면, 1992년 1억8백만달러 상당 수출된 인쇄물은 1993년 1억1천4백만 달러 어치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보는 인쇄기계 수입과 인쇄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쇄물 수출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상이 인쇄업계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쇄신문은 세계গুল지의 인쇄기계 생산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산대형인쇄기계의 생산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됐다며 국내 인쇄업계가 대형인쇄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쇄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기종 선택에 따른 방향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시설을 갖추다보면 인쇄사의 특징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품질관리도 엉성해 질 것이라며, 공정이나 기종별로 기계를 선택해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체제를 쌓아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